

영암문화관광재단,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 본격 준비 체험 중심의 참여형 축제로 역사·문화 브랜드 강화

전라남도 영암군은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성공적인 왕인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왕인박사의 주요 업적을 재해석하고 콘텐츠 매력을 강화하여 봄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행사 중심의 운영 관행을 지양하며, 축제도시만의 기획 및 실행력을 확대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K-문화를 중심으로 브랜드 강화를 추진해 2027년 영암왕인문화축제 30주년 및 '영암방문의 해'를 전라적으로 홍보하며 '왕인'과 '영암'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영암만의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구축해 브랜드 축제로서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재구조화를 통해 균형감 있는 콘텐츠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축제 후에도 자산이 남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영암다

움'이 반영된 매력적인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개최 목적을 재정립하고 핵심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축제도시팀 오세현 팀장은 "그동안 왕인에서 파생된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표 프로그램을 통한 역사적 가치 전달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성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개방'과 '연결'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적 자산을 축제의 서사로 재구성해 협력을 통한 브랜드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6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오는 4월 4일(토)부터 12일(일)까지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관람 중심 방식에서 참여형 축제로 전환하여,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며 '왕인'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학교예술교육에 필요한 악기, ‘악기뱅크’ 통해 빌려주세요”
전남교육청, 유헤악기 1,000여 점 공유... 통합예약시스템 간편 예약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내 유헤악기를 공유해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악기뱅크’를 운영한다.

‘악기뱅크’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헤악기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해 필요한 학교에 대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교과 수업과 방과후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악기를 전남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yeyak.jne.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악기를 공유하고, 수요가 높은 고가 악기도 함께 확보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악기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예술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악기뱅크에는 현악기·관악기·타악기 등 1,000여 점의 다양한 악기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20점이 대여 및 관리전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은 ‘악기뱅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학교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악기뱅크는 고가 악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학교 간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고흥군, 녹동에 분청사기 특별홍보관 운영

녹동신항 여객선터미널 내 '네 번째 홍보관 개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고흥분청사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녹동신항 여객선터미널 내에 특별홍보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은 제주를 오가는 관광객이 북돋는 녹동신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기획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승선을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고흥분청사기의 매력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홍보관에서는 고흥분청사기 특유의 거친 질감과 유약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군은 고흥의 자연과 생동감을 담아낸 전시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실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방문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분청사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동항 특별홍보관은 ▲고흥장은 영화관 ▲고흥 만남의 광장 ▲녹동공공버스터미널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열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시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기간 중 광양매화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호천 엄재권 화백의 민화 특별전 「매화 향기, 민화에 피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달된 국빈 선물 민화 '기린도'를 제작한 엄재권 화백의 주요 작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 대부분은 진품으로 구성되며, 국빈 선물로 전달된 '기린도'는 아트프린트 형태로 선보인다.

전시는 '매화 향기에 실어 보내는 민화의 봄'을 주제로 ▲탐매 ▲심매 ▲향매 등 3개 테마로 구성된다.

'탐매'에서는 십장생도 병풍 등 전통 민화를 중심으로 민화의 상징성과 역사적

광양시, 제25회 광양매화축제서 엄재권 화백 민화 특별전 시진핑 주석에 전달된 '기린도' 제작 작가 전시

의미를 조망한다. '심매'에서는 매화와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민화 특유의 표현을 보여준다. '향매'에서는 전통 민화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을 전시하며, 저서 「우리 곁의 민화」도 함께 소개한다.

호천 엄재권 화백은 (사)한국민화협회가 지정한 '민화전통문화재 제2호' 작가로, 전통 민화의 전통성을 계승·발전시키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 '기린도'가 한·중정상회담 국빈 선물로 채택되며 전통 민화의 예술성

이 대외적으로 조명된 바 있다.

광양시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광양매화 축제를 자연과 예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엄재권 화백의 특별전은 광양 매화를 전통 민화와 연계해 축제의 문화적 의미를 확장하는 자리”라며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예술을 함께 선보이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국내 유일의 시즌제 영화제인 남도영화제(주최 전라남도·장흥군 / 주관 남도영화제집행위원회·(사)전남영상위원회)가 시즌3 개최지를 전남 장흥군으로 확정했다.

전라남도도와 장흥군, 전남영상위원회는 25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지 선정 발표식을 열고, 남도영화제 시즌3를 2027년 장흥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효석 전라남도 문화융성국장, 최수중 남도영화제 집행위원장,

남도영화제 시즌3, 2027년 장흥 개최 확정 2026년 프레 행사 시작으로 본격 준비 돌입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식에서는 시즌3 추진 방향과 함께 2026년 진행될 프레(Pre) 사업 계획도 소개됐다.

프레 행사를 통해 지역 협력 체계를 구

축하고, 장흥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프로그램과 야외 상영 등을 선보이며 본 행사에 앞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도영화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시즌제 영화제로, 지역 중심의 로컬 영화제 모델을

구축해 왔다.

개최지를 단순한 행사 공간이 아닌 영화제의 핵심 주제로 삼아, 각 지역의 문화·역사·장소성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해왔다.

2023년 시즌1 순천, 2025년 시즌2 광양 개최를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광양에서는 컨테이너 특별관 운영 등 지역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시즌3 개최지인 장흥은 전국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내세워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도영화제 시즌3는 장흥이 지닌 문화적 서사와 정서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기획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빠빠옹zip) 등 지역의 영상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장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화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최수중 남도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남도영화제 시즌3를 통해 장흥의 문화적 자산이 영화와 결합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최를 통해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다양한 이야기가 영화 콘텐츠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